

설교에
맛을 내는
예화7

[인생]

1. 내가 달려갈 길

전진하는 인생

1961년 9월 30일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활란 박사님께서 이십 하시는 날이었다. 이십살의 분위기는 그녀의 이십을 아쉬워하는 호느낌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 매우 절뚝했다. 마침내 김활란 박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그런데 오르자마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마음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전9:1).

설교의 맛을 내는 예화5

[교단, 역경]

실명도 하나님의 도구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을 쓴 강영우씨는 14세까 지 정상시력을 가졌었다.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어가는 4.5년 동안 악기로 사물 을 볼 수 있었으나 여러 번의 수술 실패로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다. 강영우씨는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은 하나님이 원

망스럼까지 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국으 로 장예인 최초로 정규 유학을 갔으며 3년 8개월 만에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 학위(피츠버그대학)를 받았다.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 가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다.

영어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반응이 커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크리스천데일드, 가이드 포스트 등의 잡지에 소개되었다.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었으며, 정상인들에게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었다.

본지는 위 글을 파란색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파란색 표지/출판권자 지음)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일 교수 Q&A 시리즈 2. 36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은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과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적으로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주제는 아벨도론의 페일스(pauls)교수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 다. 질투로 번역된 기본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기나’입니다. 이 단 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열심 시기, 질투’입니 다.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행동을 야 기하는 열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이기도 하 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열심”이란 의미로 쓰일 때는 중립적이지만 “시기”나 “질투”가 인 간에게 쓰일 때는 항상 부정적입니다.(잠6:34; 14:30; 27:4). 그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오는 경쟁심에서 생긴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 면 그 신들은 자연을 인격화 내지 신격화시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나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질투하는 하나님”(엔 칸나)을 사전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을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HALOT).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혼인과

같은 언약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결함이 있어서 인간처럼 경쟁자를 질투 못하는 질투심이 발동한단 고 박사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질투하시고 항상 자신의 언약에 신 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돌보시고 거룩함을 지 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한편 으로 그분의 질투는 조상의 허물을 자녀에게 인계주고, 다른 한편으 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양면성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보장 되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 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속 역사를 이끄는 주권력이 됩니다. 인 간의 질투와 달리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결과가 파괴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본란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신득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한 주 의 시강상

추석달

김문선

• 마산 21 신촌문예 시 입선(2004)
• 한국문인협회 회원
• 도산교회 은퇴목사

절씩거리는
바닷물의 고삐 휘어잡고
밀물썰물 밀고 당기는
둥근달의 인력

어머니의 가슴마다
환한 보름달이 걸렸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인정에 허기진 핏줄 휘어잡는
아름다운 선명한
그 사랑의 인력

웅색한 핏줄들
플멜레 소리 만큼 서러운 삶에도
보름달 포근한 빛이 담겼으면
달맞이 고향 언덕엔
은빛 노래가 살았으면

미션21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phj2930@nate.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학원무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회총회 총회장 정서영목
사입니다. 합동개회 총회신
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弟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 정 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 시 자 격
신 학 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 술 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야간반: 매주 월/화(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개혁, 설립인력,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총회신학

신수신학사
총장주
목회학과
신학부
신학연구원
목회학과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